**언어로 역사하는 영 /고바울 목사**

****

† 언어로 역사하는 영

최근에 통신망이 고도로 발달되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국제화 물결을 타고 전에는 없었던 외래의 악한 영들의 침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담소를 할 때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주고받는 것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성령의 교통이 있으며 기쁨이 나눠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성령의 은사가 나누어집니다.

주의 종들끼리 식사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영적인 교통이 있으며 서로의 은사가 교류되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음담패설을 할 때는

그 내용에 맞장구를 치는 동안 악한 영들이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교류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악한 영이 그 입에 들랑날랑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말의 영이며,

듣는 자들이 그 말에 기쁨을 느끼고 동조할 때 그 악한 영에 감염됩니다.

심지어는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축복이 이뤄지며,

또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낫게 됩니다.

멀리 있어도 응답이 이뤄집니다.

악한 영들도 악한 말에 의해 전이됩니다.

전화를 통하여 이쪽에 있는 악한 영이

상대방 전화하는 사람의 형편을 보고 더 낫다고 여겨지면

전화하는 말을 통하여 쑥 그쪽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흑암의 영들이 옮겨가고 옮겨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자들과의 대화를 할 때에 부지불식간에 흑암이 들어오는 일도 생깁니다.

불신자들과 대화하고 불신자들을 안수할 때에

만약 나에게 그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그 죄를 통해서 내게 흑암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회개를 통하여 다시 나갑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면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고바울 목사님이 지은 “축복과 형통의 길로” 중에서...)